‘최고의 골프장’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세요

XGOLF ‘소비자만족 10대 골프장’ 선정위원 30일까지 모집

후기·평균점수로 1차 후보지 선정
소비자 선정위원 답사로 2차 평가
전문위원들 평점 더해서 최종 결정

골퍼들을 감동시킨 최고의 골프장을 찾아라!

스포츠동아와 동아일보, 인터넷 골프 예약사이트 XGOLF가 1년 동안 골퍼들에게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2016~2017 소비자만족 10대 골프장’을 선정한다.

골프는 과거 폐쇄적인 스포츠에서 탈피해 대중스포츠로 빠르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산되는 한편 여성 골퍼의 인구가 늘어나는 등 새로운 풍속도가 펼쳐지고 있다. 올해는 리우올림픽에서 박인비가 금메달을 획득해 골프 붐의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소비자만족 10대 골프장은 이런 변화에 발맞춰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선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XGOLF에서는 9월30일까지 2차 선정(검증라운드)에 참여할 소비자 선정위원을 모집한다.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골프장을 찾아라

소비자만족 10대 골프장의 선정은 1차부터 3차까지 진행된다. 1차는 XGOLF(www.xgolf.com) 홈페이지의 골프장 이용후기와 소비자 평가로 이뤄진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약 50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소비자들이 이용했던 골프장에 대해 평가하고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후기 100건 이상, 평균점수 8.0 이상인 골프장이 1차 후보로 선정된다. 평가항목은 ①코스 관리 ②가격만족도 ③부대시설 ④캐디서비스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골프장별 평가 점수는 모두 공개되고, 평가된 정보는 매월 평점 그래프를 통해 일반 골퍼들에게 제공된다. 따라서 현재의 코스 상태와 서비스 수준 등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2차 평가는 1차 평가에서 후보로 선정된 골프장을 대상으로 소비자 선정위원 전문 평가자문위원의 현장답사로 진행된다.

소비자 선정위원은 9월30일까지 XGOLF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 ‘선정 위원이 되고 싶은 이유’를 주제로 덧글을 달면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선정된 소비자 선정위원은 평가자문위원과 함께 10월부터 매주 1~2곳의 후보 골프장을 직접 방문하고 라운드를 실시하면서 2차 평가를 진행한다. 소비자 선정위원에게는 검증라운드 및 시상식 참여 그리고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2차 평가는 좀 더 세밀하게 진행된다. 코스(난이도·레이아웃·페어웨이 및 그린의 잔디 관리), 서비스(캐디·식음료·주차 등), 편의시설(식당·라커룸·기타 시설) 등을 세분화해 부문별로 평가한다.

3차 평가에서는 1·2차 평가 점수를 토대로 최종 후보군을 선정한 뒤 전문위원들의 평가점수를 더하게 된다. 12월 중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을 선정·발표한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랭킹1위 박정환, ‘알파고의 영웅’ 이세돌 등이 출전하는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본선 16·8강전이 10월4일과 6일 대전광역시 삼성화재 연수원에서 열린다. 지난 8일에 열린 32강전. 사진제공 | 한국기원

‘커제 천적’ 이동훈 8단, 이번엔?

상대 전적 3승2패…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16강서 맞대결

‘바둑 별들의 제전’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본선 16강과 8강전이 10월4일과 6일 대전광역시 삼성화재 유성연수원에서 펼쳐진다.

지난 8일 끝난 32강전에서 한국은 8명이 16강전에 진출했다. 랭킹 1위 박정환 9단과 ‘알파고의 영웅’ 이세돌 9단을 비롯해 강동윤 9단, 이동훈 8단, 신진서 6단, 강승민·변상일 5단 등 7명이 16강에 올라 13번째 삼성화재배 우승컵을 노린다.

16강전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결은 한국랭킹 9위 이동훈 8단과 ‘디펜딩 챔피언’ 커제 9단(중국)의 대국이다. 지금까지 이동훈이 세계대회에서 거둔 최고성적은 16강 진출이 전부. 하지만 놀랍게도 두 사람의 상대전적은 이동훈 쪽이 3승 2패로 앞서고 있다. 특히 중국의 1인자 커제가 세계무대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2014년 이후 3승 1패를 기록했다. 2015 리민배 세계신예바둑 최강전 준결승, 2016 중국 갑조리그에서 승리해 2연승 중이다.

2000년대 이후 출생자 중 유일하게 이번 대회 본선에 오른 신진서의 활약도 기대된다. 이미 여러 차례 세계대회에서 활약하며 이름을 알린 신진서는 2013년과 2014년 삼성화재배 본선에 올랐던 중국의 판윈뤄 5단을 만난다. 지금까지 대결에서는 신진서가 밀렸다. 판윈뤄에서 ‘판맛’을 못 보고 2패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신진서가 올해 출전한 세계대회에서 LG배 8강, 바이링배 4강에 오르는 등 최고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화재배 사상 네 차례 우승을 차지한 이세돌은 통산 다섯 번째 우승과 세계대회 단일기전 최다 우승에 도전한다. 상대는 2014 리민배 초대 우승을 차지한 중국의 신예 통멍청 5단. 두 사람이 공식기전에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랭킹 1위 박정환은 중국 국가대표팀 감독 위빈 9단을 만나 대회 첫 우승에 도전한다.

강동윤은 튀자시 9단, 변상일은 저우루이양 9단, 강승민은 탄샤오 7단을 상대로 8강 티켓을 놓고 격돌한다. 강동윤은 튀자시에게 2승 1패를 기록 중이다. 한중대결이 대거 펼쳐지는 가운데 ‘중중대결’도 한 판 벌어진다. 2013년 삼성화재배 우승자 탕웨이싱 6단과 7회 응씨배 우승자 판팅위 9단이 대결한다.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의 총상금규모는 8억원, 우승상금은 3억원이다. 지난 대회 결승에서는 중국의 커제 9단이 스웨 9단을 2-0으로 꺾고 대회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로드 길들이기’ 나선 유재학 감독의 믿음

남자프로농구 모비스의 외국인선수 찰스 로드(31)는 ‘관리하기 쉽지 않은’ 선수로 잘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 6번째 시즌을 맞고 있을 정도로 실력은 이미 검증됐지만, 감정기복이 심한 데다 돌출행동을 일삼아 감독들의 속을 끓게 했다. kt, 전자랜드, KGC에서 활약하는 동안 ‘병 주고 약 주는’ 격으로 구단 관계자들을 애태웠다.

올 시즌에는 모비스 유재학(53) 감독이 ‘로드 길들이기’에 나섰다. 이미 한 차례 사단이 났다. 로드는 9월초 일본 도쿄전지훈련에서 약속시간에 10분 늦어 팀 훈련에 해를 끼쳤다. 유 감독은 로드의 퇴출까지 고려했으나, 그가 동료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면서 일단락됐다.

모비스는 최근 국내 구단들과의 연습경기를 통해 전술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로드도 새로운 팀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는 데 여념이 없다. 유 감독은 “(7월) 드래프트 후 운동을 좀 해서 팀에 합류하라고 했는데, 운동을 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오지 않았다. 오히려 체중이 불어서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로드에게 별다른 잔소리를 하진 않았다. 일본에서 훈련 약속시간에 늦어 사과 한 뒤로는 묵묵히 자기 운동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감독은 “개막(10월 22일) 이전까지 체중 감량을 하라고 지시했더니, 야간에도 긴팔 옷을 입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뛰더라. 식단도 조절하면서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모습 때문에 몸을 만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별 탈 없이 훈련하고 있는데, 시즌 내내 이어질지는 모르겠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유재학 감독(왼쪽)과 찰스 로드. 스포츠동아DB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스포츠토토

ACL ‘전북 vs 서울’ 승자는?

프로토 78회차 발행

AFC·UEFA 챔피언스리그 대상
전북, 올시즌 서울에 3전승 우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대표 손준철)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및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등을 대상으로 고정 배당률 게임 프로토(Proto) 78회차를 발행한다. 이번 회차에서 가장 큰 관심을 사고 있는 종목은 주중 펼쳐지는 AFC와 UEFA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다. 주요 대상경기를 살펴본다.

●‘K리그 더비’로 주목받는 AFC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

K리그 클래식의 강자 전북과 서울이 28일 AFC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을 치른다. 이번 프로토에서 준비된 유형은 경기 결과(승·무·패)를 맞히는 일반게임(122경기)을 비롯해 홈팀 전북에게 -1.0점이 주어진 핸디캡(123경기), 양 팀 득점의 합이 2.5점을 넘길지를 결정하는 언더/오버(124경기) 등 모두 3가지다.

1차전인 만큼 더욱 신경이 쓰이는 팀은 당연히 홈팀 전북이다. 원정 다득점 우선 원칙이 적용되는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전북으로선 당연히 가능한 많은 골을 뽑아야 한다. 반대로 원정팀 서울은 먼저 수비를 강화한 뒤 역습을 노리는 전략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올 시즌 상대전적에선 전북이 3전승으로 서울을 압도했다. 특히 최근 2경기에서 전북은 서울에 3골씩을 퍼부었다. 서울이 수비 집중력을 잃는다면, 일반 게임은 물론 핸디캡과 언더/오버에서도 모두 전북이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원정 떠나는 강팀들의 행보로 주목받는 UEFA 챔피언스리그

AFC 챔피언스리그와 달리 이제 초반 레이스에 돌입한 UEFA 챔피언스리그에선 강팀들의 원정경기가 눈에 띈다. 29일 새벽(한국시간) 펼쳐지는 경기들을 살펴보면, 프랑스리그1의 PSG(파리 생제르맹)를 비롯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FC바르셀로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시티,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 등 전통의 강호들이 모두 원정을 떠난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사로잡는 경기는 셀틱(스코틀랜드)-맨체스터시티전(156~158경기)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바이에른 뮌헨전(159~161경기)이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FC바르셀로나에 0-7 대패를 당한 셀틱은 뮌헨글라트바흐를 4-0으로 완파한 맨체스터시티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분위기 반전을 꾀한다. 그러나 객관적 전력에선 당연히 맨체스터시티의 우세가 예상된다. 셀틱이 약한 팀은 아니지만, 올 시즌 개막 이후 10경기에서 전승을 질주하고 있는 맨체스터시티의 기세는 그야말로 파죽지세다. 포인트는 홈 관중의 열기를 등에 업은 셀틱의 선전 여부다. 셀틱은 올 시즌 리그에서 치른 홈 3경기에선 전승을 거두고 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또한 쉽지 않지만, 안방의 이점을 활용해 승점 확보에 도전한다. 1차전에서 PSV(네덜란드)를 상대로 승점 3을 챙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프리메라리가에서도 3승3무로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특히 21일에는 강호 FC바르셀로나와 1-1로 비기는 등 여전히 탄탄한 전력을 과시하고 있다. 문제는 올 시즌 너무도 강력한 출발을 보이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의 막강함이다. 바이에른 뮌헨은 컵대회는 물론 리그까지 올 시즌 8경기에서 전승을 거두고 있다. 심지어 27골을 쏟아내는 동안 단 1골만 허용했다.

이번 프로토 78회차의 모든 경기에는 각 대상경기 시작 10분 전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대상경기의 정보는 현지 사정상 언제든 바뀔 수 있으므로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경기일정을 비롯한 자세한 정보는 케이토토 홈페이지(www.ktoto.co.kr)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www.betma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토토/프로토) 이외 모든 유사 스포츠베팅 행위는 ‘불법스포츠도박’이며, 이를 이용할 시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클린스포츠 통합클센터 [불법신고] 1899-1119 www.cleansports.or.kr ▪ 공식발매사이트 www.betman.co.kr

골프토토 스페셜 27회차 〈KPGA 신한동해오픈〉 투표율 중간집계 (27일 오전 8시 현재)

	3오버이상	1~2오버	0(이븐)	1~2언더	3~4언더	5언더이하	언더파 예상
최진호	10.90%	7.62%	9.76%	31.48%	27.49%	12.75%	71.72%
박상현	4.13%	15.53%	9.97%	41.03%	14.89%	14.46%	70.38%
이상희	6.84%	9.26%	17.88%	15.10%	47.22%	3.70%	66.02%
김준성	7.69%	24.22%	18.95%	25.43%	21.94%	1.78%	49.15%
이상엽	8.26%	14.81%	24.43%	23.86%	19.59%	9.05%	52.50%
이창우	10.11%	14.74%	21.51%	34.26%	15.46%	3.92%	53.64%
김경태	8.48%	9.40%	4.20%	52.78%	14.39%	10.75%	77.92%

골프팬 78% “김경태 언더파 친다”

최진호·박상현도 언더파 점쳐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29일 베어즈베스트청라CC에서 열리는 ‘KPGA 신한동해오픈’을 대상으로 한 골프토토 스페셜 27회차 게임의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전체 참가자의 77.92%는 7번 선수 김경태의 언더파 활약을 점쳤다.

1번 선수 최진호(71.72%)와 2번 선수 박상현(70.38%)이 각각 2·3순위를 차지한 가운데 3번 선수 이상희(66.02%), 6번 선수 이창우(53.64%), 5번 선수 이상엽(52.50%)도 과반의 언더파 지지를 받아 1라운드에서 준수한 성적을 낼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4번 선수 김준성은 49.15%의 상대적으로 낮은 언더파 지지율을 보였다.

지정선수별 1라운드 예상 스코어에선 이상희의 경우 3~4언더파 구간이 47.22%로 가장 많았다. 김경태(52.78%), 박상현(41.03%), 이창우(34.26%), 최진호(31.48%), 김준성(25.43%)은 1~2언더파 구간이 1순위였다. 이상엽(24.43%)은 1~2오버파 예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골프토토 스페셜 27회차는 28일 오후 9시50분 발매 마감된다. 골프토토 게임의 경우 특히 선수 개인 또는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해 대상선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게임에 참여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삼성화재, 대한항공 꺾는다” 64%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28일 펼쳐지는 2016 청주·KOVO컵을 대상으로 한 배구토토 스페셜 45회차 게임의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전체 참가자의 63.64%는 삼성화재-대한항공(1경기)전에서 삼성화재의 승리를 내다봤다. 대한항공 승리 예상은 36.36%로 나타났다. 최종 세트스코어 예상에선 3-0 삼성화재 승리(24.21%), 1세트 점수차 예상에선 3점(20.99%)이 각각 1순위로 집계됐다.

한국전력-OK저축은행(2경기)전에선 한국전력 승리 예상(52.81%)이 OK저축은행 승리 예상(47.18%)을 앞질렀다. 최종 세트스코어 예상에선 2-3 OK저축은행 승리(20.43%), 1세트 점수차 예상에선 3점(24.09%)이 각각 최다였다.

배구토토 스페셜은 국내외 남녀배구 경기의 홈팀 기준 최종 세트스코어와 양 팀의 1세트 점수차를 맞히는 게임이다. 세트스코어 항목은 홈팀 승리인 3-0, 3-1, 3-2와 원정팀 승리인 0-3, 1-3, 2-3 등 6가지로 이뤄져 있다. 1세트 점수차 항목은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이상으로 제시된다. 이번 배구토토 스페셜 45회차는 1경기 시작 10분 전인 28일 오후 3시50분 발매 마감된다.

배구토토 스페셜 45회차 투표율 중간집계 (27일 오전 8시 기준)

구분		〈1경기〉 삼성화재-대한항공	〈2경기〉 한국전력-OK저축은행
세트 스코어	3대0	24.21%	19.24%
	3대1	21.16%	17.48%
	3대2	18.27%	16.09%
	0대3	13.64%	16.10%
	1대3	9.34%	10.65%
	2대3	13.38%	20.43%
1세트 점수차	2	13.69%	22.95%
	3	20.99%	24.09%
	4	15.21%	14.18%
	5	12.49%	12.71%
	6	19.40%	17.88%
	7+	18.22%	8.18%
승패	홈팀 승리	63.64%	52.81%
	원정 승리	36.36%	47.18%